

# 상상 그 이상! 100만 도시를 향한 남양주시 교통 혁명, 내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서론: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으로

매일 아침, 서울로 향하는 기나긴 출퇴근길과 상습적인 도로 정체로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남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교통 불편이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도권의 베드타운으로 인식되던 남양주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라는 비전 아래,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교통 허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남양주시는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도시의 경제 지도를 바꾸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입니다. 본 문서를 통해 남양주시의 교통 혁명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100만 자족도시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

## 1. 사통팔달 철도망: GTX와 전철로 열리는 '출퇴근 30분 시대'

철도망 확충은 도시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을 넘어, 경제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촘촘한 전철 네트워크를 통해 수도권 어디로든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는 교통 혁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 1-1. GTX, 남양주를 관통하다

용어 설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란? GTX(Great Train eXpress)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약자입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깊은 지하 40m 이상의 공간을 최고 시속 180km로 달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신개념 교통수단입니다.

남양주시는 치밀한 전략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5개 GTX 노선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며, GTX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 GTX-B: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 동서를 관통하는 노선
- GTX-D:김포/인천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팔당까지, 수도권 남부와 동부를 횡단하는 핵심 노선
- GTX-E:인천공항에서 남양주 덕소까지, 수도권 동서축을 잇는 또 하나의 중요 노선
- GTX-F:수도권 외곽을 원형으로 잇는 순환선으로, 남양주를 주요 거점으로 포함
- GTX-G: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으로, 경기 북부와 서남부를 연결하며 남양주를 경유

특히, 2024년 3월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은 시민들의 삶을 가장 먼저 바꿀 핵심 노선입니다. 남양주시에는 별내, 왕숙(신설), 평내호평, 마석등 4개의 역이 들어설 예정이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통 시 마석역에서 서울 역까지 약 30분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70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그야말로 '출퇴근 혁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일 왕복 80분 이상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거나 자기 계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1-2. 촘촘해지는 전철 네트워크

기존의 경의중앙선, 경춘선, 4호선(진접선)에 더해 새로운 노선들이 속속 개통 및 추진되면서 남양주시의 전철망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 8호선 연장(별내선):최근 개통한 8호선 연장(별내선)은 남양주 최초의 남북축 철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별내에서 잠실까지 27분 만에 환승 없이 도착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선):서울 강동에서 하남을 거쳐 남양주 진접2지구까지 연결되는 9호선 연장 사업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로써 남양주시는 총 5개의 전철 노선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하며, 시민들의 교통 편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 1-3. 일상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경춘선 서틀열차

남양주시의 노력은 먼 미래의 청사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올 5월 1일,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가장 먼저 '마석-상봉 셔틀열차'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하루 12회 운행되는 이 셔틀열차 덕분에 경춘선의 배차 간격이 기존 18분에서 12분으로 단축되어, 시민들의 출근길이 이미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이는 시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 중심 행정이 만들어 낸, 지금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철도망은 남양주시를 수도권의 중심으로 이끄는 대동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철도와 함께 남양주의 혈관을 구석구석 잇는 도로망의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 **2. 막힘없이 달린다: 확 바뀌는 남양주 도로 지형**

잘 뚫린 도로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혈관과 같습니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도로망과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도로망을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도시 내외부의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2-1. 광역 도로망: 더 넓고 빠르게**

남양주시의 광역 접근성은 최근 몇 년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두 개의 핵심 도로 개통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조안 구간): 지난해 2월 개통된 이 도로는 수도권의 남북을 직접 연결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여, 서울 및 경기 북부의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핵심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 남양주의 동서를 잇는 최단 연결축으로, 개통 전에는 15km 이상을 우회해야 했습니다. 개통 이후 이동 시간이 평일 기준 30분, 주말 기준 1시간 이상 단축되면서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주말 나들이 길이 더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닌, 진정한 휴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 **2-2. 생활 도로망: 구석구석 편리하게**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도로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 시도 8호선 (차산~삼봉):2.1km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국도 45호선과 국지도 86호선을 직결하는 지역 순환형 도로망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도와 조안 생활권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농어촌도로 (102호선, 212호선) 확장:공장과 창고가 밀집한 화도읍 102호선 도로 폭을 10m로 확장해 산업도로의 주행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주말 교통량이 급증하는 진진읍 212호선 선형을 개량하여 외곽지역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확장:시가지를 관통하는 중심 도로의 고질적인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퇴계원 도심의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처럼 촘촘하게 개선된 생활 도로망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같은 광역 도로로의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이 집 앞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막힘없는 이동을 경험하게 하는 모세혈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인프라 위에서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주차 및 대중교통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3. 시민의 발이 되다: 스마트하고 편리한 주차·대중교통 혁신

잘 갖춰진 철도와 도로망이 도시의 뼈대라면, 주차와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핏줄과 같습니다. 남양주시는 고질적인 주차난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며 생활 밀착형 교통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3-1. 주차난, 아이디어로 해결하다

남양주시는 기존의 단속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주차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 전국 최초 '우리 동네 화물주차장':대규모 차고지 조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화물주차장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로, 고질적인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예산 효율성까지 높인 혁신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 '우리 동네 주차장' 사업:대형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주택가 등 생활권 내 유

휴부지를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주차 시스템:2022년 9월,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원패스 파킹(Onepass Parking)'시스템은 한 번의 등록만으로 별도 결제 절차 없이 출차가 가능하게 하여 시민 편의를 크게 증진시켰습니다. 더 이상 주차 정산기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뒷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3-2.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서비스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 땡큐버스:남양주시의 준공영제 대중교통 브랜드인 '땡큐버스'는 현재 15개 노선, 120대로 확대 운영되며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안정적인 버스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친환경 버스 도입:전기 저상버스 154대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교통 기반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및 대중교통 분야의 혁신은 시민들의 일상 속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이 모든 교통 인프라가 함께 만들어갈 남양주의 역동적인 미래 비전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 4. 교통이 만드는 기회: 100만 자족도시 남양주의 미래

지금까지 살펴본 철도, 도로, 생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단순히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GTX-B 노선으로 서울역까지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왕숙지구의 입지적 강점은 '카카오'와 '우리금융그룹'과 같은 최첨단 기업들이 남양주를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잘 뚫린 교통망은 기업을 불러모으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남양주를 '머무는 도시'에서 '기회가 넘치는 도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4-1.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편리한 교통망은 기업 유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남양주시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기반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앵커기업들을 유치하며 자족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3기 신도시 내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바이오, 의료, IT, AI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입니다. GTX-B, 9호선과 인접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기업들의 새로운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앵커기업 유치:왕숙지구 내에 AI 기반 허브로 개발될 **\*\*'카카오 디지털허브'\*\***는 약 2,5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이 미래형 통합 IT센터인 '디지털 유니버스'건립을 결정하면서 약 3,500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4-2.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남양주시는 GTX 왕숙역을 중심으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통의 결절점을 넘어, 일과 삶, 문화가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도시 공간을 창조할 계획입니다.

**\*\*'GTX 복합 역세권 콤팩트 시티'\*\***는 이러한 비전의 핵심입니다. GTX 왕숙역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지상의 초고층 빌딩까지, 도시의 모든 기능이 수직으로 연결되는 미래형 도시가 탄생합니다. 시민들은 지하철에서 내려 곧바로 GTX로 환승하고, 지상으로 올라와 쇼핑과 업무를 본 뒤, 건물과 건물을 잇는 스카й 브릿지를 통해 이웃 건물로 이동하며, 옥상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하늘 길을 여는 혁신적인 일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남양주가 미래 교통과 도시 공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교통 혁신은 남양주를 단순한 거주 도시에서 일과 삶, 여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활력 넘치는 자족도시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 결론: 당신의 삶과 함께 달려갑니다, 남양주 교통 혁명

남양주시의 교통 혁명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사통팔달 철도망은 서

울 도심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들고, 막힘없는 도로망은 도시 안팎의 이동을 자유롭게 합니다. 스마트한 생활 교통 시스템은 시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꾸고 있으며, 이 모든 인프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10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선 교통-후 입주'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고, 그 성과가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양주시의 교통 혁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남양주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